

6월 18일 발대한 서울파라미타 문화재지킴이단원들은 적극적인 문화재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단원들은 봉은사 탐방〈사진 왼쪽〉과 '도전! 골든벨'〈사진 오른쪽〉 등을 체험했다.

민족의 '얼' 담긴 문화재… "우리 손으로 지켜요"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봉은사서 발대
서울파라미타 주관, 내년 초까지 활동

"8세기 중엽에 간행된 세계 최초의 목판인쇄본으로 1행 8~9자의 다라니경문을 두루마리 형식으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1966년 10월 경주 불국사 석가탑을 보수하기 위해 해체할 당시 탑 안에 있던 다른 유물들과 함께 발견된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6월의 세 번째 주말.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서울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주최한 '전통문화 바로 알기 도전! 골든벨' 현장. 수십 명의 학생들이 각자 앞에 놓인 화이트보드에 정답을 적기 위해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금 떠올리는 데 열중이었다.

"자, 정답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주세요!"

사회자의 신호에 따라 학생들이 화이트보드를 들어올렸다. '팔만대장경' '초조장경'을 비롯한 다양한 경전과 더불어 '이게 뭐야' '잘 몰라요' '친구야 미안해' 등 각양각색의 답이 나왔다.

"정답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입니다."

"아~~~"

일순간 환호와 탄식이 섞였다. 정답을 맞힌 학생들은 화이트보드를 힘차게 흔들었고, 오답을 쓴 학생들은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문제 하나에 생존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문화재와 불교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경쟁한지 1시간 남짓. 드디어 우승과 준우승을 나누는 문제가 등장했다.

"대웅전의 주불로 봉안되며 선정인 · 항마촉지인 · 전법륜인 · 시무외인 · 여원인 등의 수인을 하고 있는 부처님은 누구일까요?"

'석가모니불'과 '비로자나불'. 서로의 답이 갈렸다.

"정답은 석가모니불입니다. 축하합니다."

동대부고 2학년 주형준 군의 우승이 확정되자 같은 학교 친구들의 환호성이 법당을 가득 메웠다. 타학교 학생들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면서도 아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우승자와 준우승자에게는 각각 50만원과 3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주형준 군은 "200개의 예상문제를 하루밖에 공부하지 못했는데 우승하게 돼 기쁘다"며 "동대부고 파라미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재를 좋아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준우승을 차지한 최한결 군(광신고 2)은 "정말 1등하고 싶었는데 실수로 문제를 틀려 아쉽다"면서 "평소 불교나 문화재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행사를 위해 공부하다보니 불교와 문화재에 많은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아깝게 떨어져 아차상을 수상한 동대부여고 학생들은 우승자를 부러워하면서도 "나란다축제에서 보란 듯이 대상을 차지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서울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이날 경인지역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문화재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전 골든벨' 역시 이 일환이다. 10여개 학교 200여 명의 중 · 고등학생이 참가한 행사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문화재지킴이 교육, 문화체험활동 등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앞으로 내년 2월까지 파라미타청소년협회원으로 활동하며, 문화재답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문화재 보존활동을 다짐하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있는 문화재지킴이단원들.

10여개 학교 200여명 참가
문화재 대한 청소년 인식 높여
모니터링 · 답사 · 교육 등 계획
"보존활동, 우리 사랑하는 길"


학생들이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부처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고 있다.

발대식에서 학생들은 대표학생이 낭독한 선서문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문화재 보전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봉은사 포교국장 환성 스님은 "문화재가 얼마나 귀중하고 많은 노력으로 관리되는지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생들은 문화재 모니터링 사전교육과 골든벨이 끝난 뒤 학교별로 봉은사 일대를 답사하며, 값진 문화재와 한국불교의 가치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다.

봉은사 석불 앞에서 만난 이동민 군(정석항공과학고 2)은 "문화재가 좋아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동참했다"며 "문화재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군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우리 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곧 우리를 사랑하는 길"이라며 "앞으로 많은 문화재를 답사하고 느낀 점을 차근차근 정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 사업 일환인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은 민관협력운동으로 문화재의 현대적 의미를 공유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나누기 위한 현장봉사활동이다. 현재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위탁관리 운영하며 문화재 순찰 및 홍보, 정화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소년에게 문화재가 갖는 의미를 알리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우리 삶을 바꾸는 기적, 절 수행!

청견 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알아차리고 다스려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

고통과 절망에서 희망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절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생생한 경험담!



다르마킹 칼리지
매주 화~토 오후 2시
절 교육 및 수행 점검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
청견 스님의 신작!

전국에 108배 열풍을 일으킨 청견 스님이 그동안 천만 배의 절을 하며 체험한 이야기들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울림들을 담았다.

현대인이 겪는 몸과 마음의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절 수행의 기본 동작부터 마음가짐,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첫 책보다 더욱 깊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간중간 그려 넣은 다양한 일러스트는 책을 보다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청견 스님 지음 / 신국판 / 328쪽 / 값 15,000원

깨달은 공동체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 전화 010-3487-0035 ● www.법왕정사.net ● 판매총판 : 운주사 02-3672-7181 ● 인터넷서점: 붓다북